
- 제11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3. 1.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국 개황	3
III. 공식 방문 기관별 출장 내용	6
1. 빌라 타피올라 (Villa Tapiola, 노인요양원)	6
2. 포르보 시청	10
3.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17
4. 오펜바흐 시의회	23
IV. 총평	29

제11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핀란드, 독일의 지방 정부 및 의회 방문을 통해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우수 정책사례를 비교하고, 강원도 접목방안을 연구하여 도정 발전 지원 및 의정역량 강화
- 출장일정 : 2022. 12. 9.(금) ~ 12. 16.(금) / 6박 8일
- 출장국가 : 핀란드 (헬싱키 등), 에스토니아 (탈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 방문기관 및 면담자

국가	방문기관 및 면담자
핀란드	• 빌라 타피올라(Villa Tapiola, 노인요양원) - 주 소 : Suotorpantie 14, Espoo, Finland - 면담자 : Ms. Tuula Laulaja(원장)
	• 포르보 시청(Porvoo Town Hall) - 주 소 : Läntinen Aleksanterinkatu 1, Porvoo, Finland - 면담자 : Ms. Elina Duréault(경제개발관리자), Mr. Niklas Läckström(교육전문가)
독일	• 프랑크푸르트 시의회(Frankfurt City Council) - 주 소 : Logenstraße 8, Frankfurt, Germany - 면담자 : (부의장) Ms. Julia Eberz, (시의원) Ms. Anna Nguyen, Mr. Jumas Medoff, Ms. Claudia Korenke, Mr. Mathias Pfeiffer, Ms. Christina Ringer (국제부장) Ms. Petra Bouilaut
	• 오펜바흐 시의회(Offenbach City Council) - 주 소 : Berliner Str. 100, Offenbach am Main, Germany - 면담자 : Mr. Stephan Färber(시의장)

○ 출 장 자 : 10명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 전문위원실 직원 2)

연번	소속	직 위	성 명	영문명	비 고
1	기획행정위원회	위 원 장	한창수	HAN CHANGSOO	남
2	"	부위원장	김길수	KIM GILSOO	남
3	"	위 원	류인출	YOO INCHOO	남
4	"	위 원	문관현	MOON KWANHYUN	남
5	"	위 원	심영곤	SIM YEONGGON	남
6	"	위 원	임미선	IM MISEON	여
7	"	위 원	최승순	CHOI SEUNGSOON	남
8	"	위 원	하석균	HA SEOKGYOON	남
9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이병승	LEE BYEONGSEUNG	남
10	"	주 무 관	박승의	PAK SEUNGEUI	남

○ 주요일정

일자	주요일정
12. 09.(금)	▶ 이동 : 인천공항 → 헬싱키
12. 10.(토)	▶ 공식방문 : 빌라 타피올라(Villa Tapiola, 노인요양원)
12. 11.(일)	▶ 현장견학 : 탈린 (에스토니아) 구시가지
12. 12.(월)	▶ 공식방문 : 포르보(Porvoo) 시청
	▶ 현장견학 : 헬싱키 올림픽 스타디움 타워
	▶ 이동 : 헬싱키 → 프랑크푸르트
12. 13.(화)	▶ 공식방문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시의회
12. 14.(수)	▶ 공식방문 : 오펜바흐(Offenbach am Main) 시의회
12. 15.(목)	▶ 이동 : 프랑크푸르트 → 인천공항
12. 16.(금)	▶ 인천공항 도착 및 일정종료

Ⅱ 출장국 개황

○ 핀란드 개황

구분	내용
국 명	• 핀란드 공화국 (Republic of Finland)
수 도	• 헬싱키 (Helsinki)
인 구	• 558만명 (2021.7월 / CIA 추정)
면 적	• 33만 8424km ² (한반도의 약 1.5배)
언 어	• 핀란드어 (87.6%), 스웨덴어 (5.2%)
종 교	• 루터교 (69.8%), 그리스정교 (1.1%)
민 족	• 핀란드인, 스웨덴인, 사미족 등
정부형태	• 의원집정부제 (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
주요인사	• 국가원수 :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대통령(2018.02.~ / 집권2기) • 총리 :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 (2019.12.~)
G D P	• 2,988억불 (2021, IMF) - 1인당 GDP : 5만 4,008불
화폐단위	• 유로(EURO)
교 역	• 수출액 : 818억불, 수입액 : 857억불 (2021,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 교역 : 14.1억불(수출 5.31억불, 수입 8.82억불)
실 업 륜	• 7.6% (2021, IMF)
교민현황	• 744명 (2019)

※ 출처 : 외교부 자료(2022.10.)

○ 에스토니아 개황

구분	내용
국 명	• 에스토니아 공화국 (Republic of Estonia)
수 도	• 탈린 (Tallinn)
인 구	• 122만명 (2021.7월 / CIA 추정)
면 적	• 4만 5228km ² (한반도의 1/5)
언 어	• 에스토니아어(공용어), 러시아어(전체 인구의 약 30%가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
종 교	• 루터교, 러시아정교 등
민 족	• 에스토니아인(69%), 러시아인(25%) 등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주요인사	• 국가원수 : 케르스티 칼유라이드(Kersti Kaljulaid) 대통령(2016.10. 취임, 무소속) • 총리 :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총리(2021.01. 취임, 개혁당)
G D P	• 310억불 (2020, WB) - 1인당 GDP : 2만 3,312불
화폐단위	• 유로(EURO)
교 역	• 수출액 : 164억불, 수입액 : 173억불 (2020,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 교역 : 2.03억불(수출 1.11억불, 수입 0.92억불)
실 업 률	• 4.4% (2020, WB)
교민현황	• 76명 (2019)

※ 출처 : 외교부 자료(2022.10.)

○ 독일 개황

구분	내용
국 명	• 독일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수 도	• 베를린 (약 366만명)
인 구	• 8,316만명
면 적	• 35만 7580km ² (한반도의 1.6배)
종 교	• 가톨릭(28%), 개신교(25%), 이슬람교(5%), 무교 또는 기타(42%)
민 족	• 게르만족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주요인사	• 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사민당) • 총리 : 올라프 솔츠(Olaf Scholz, 사민당)
G D P	• 4.2조불 (2021, EIU) - 1인당 GDP : 5만 8,348불
화폐단위	• 유로(EURO)
교 역	• 수출액 : 1.6조불, 수입액 : 1.4조불 - 우리나라와 교역 : 331억불(수출 111억불, 수입 220억불)
실 업 률	• 3.3% (2021)
교민현황	• 4만 7,428명 (2020)

※ 출처 : 외교부 자료(2022.10.)

Ⅲ 공식 방문 기관별 출장 내용

1. Villa Tapiola (빌라 타피올라, 노인요양원)

☐ 방문개요

- 일 시 : 2022. 12. 10.(토) 13:30
- 면 담 자 : Ms. Tuula Laulaja (원장)
- 주 소 : Suotorpantie 14, Espoo, Finland

☐ 주요 방문 내용

○ 시설 소개 (Ms. Tuula Laulaja)

- 빌라 타피올라(Villa Tapiola)는 2005년 설립된 치매요양원으로 기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3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입소자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기억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들임.
- 빌라 타피올라는 고객만족도 및 품질 관련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고객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고객 친화적 요양원임. 입소자는 간병인과 동등한 입장으로 간병인과 입소자를 구별하는 유니폼이 없음.
- 좋은 실내 공기 유지와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는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화학 세제가 아닌 활성수를 사용하고 있음.
- 빌라 타피올라 옆에는 단기 요양을 위한 시니어 호텔인 아이놀라(Ainola)가 있으며 2019년부터 설립하여 운영 중임.
- 아이놀라에는 14개의 방이 있으며 기억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기 연중무휴 및 파트타임 치료를 제공하고 있음. 가족 간병인은 극장에 가거나 여행을 하고 싶다면 주말 또는 몇시간 동안 여기로 환자를 데려 올 수 있음.



[시설 소개]



[시설내부 확인]

○ 주요 질의답변

Q : 시니어 호텔에 머무르기 위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억장애 등급이 필요한지와 최소연령 제한이 있는지?

⇒ 시니어 호텔의 경우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또는 전화예약을 하면 머무를 수 있고 머무르는 데에 최소연령 제한은 없음.

Q : 시니어 호텔 이용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와 국가 또는 시의 지원이 있는지?

⇒ 호텔 일일 요금은 230유로(한화 약 32만원)이며 시간당 요금은 처음 두 시간 동안 시간당 40유로, 이후 시간당 15유로임. 요금에는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기억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은 시에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하루 10만원 가량을 부담하면 됨.

Q : 직원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는지?

⇒ 직원들은 치매와 관련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치매환자들이 오는 것을 선호하는 환경임.

Q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미용·이발 서비스, 마사지 서비스 등이 있으며 원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로 202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이며, 2030년에는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참고 : 2022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이며, 2030년에는 25.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에서는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시스템 구조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건강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의 평등과 가용성을 개선하며 비용을 억제하는 것임.
- 특히, 노인복지서비스는 서비스 구조의 개혁과 함께 연령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유형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지원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주지원 서비스를 줄여 다른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빌라 타피올라는 효과성보다 서비스의 질에 중점을 둔 시설로써 이러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자 사설 노인요양시설이 난립하고 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었음.
- 핀란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및 강원도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목표를 수립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리감독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령사회에 노인 및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요양시설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방문 사진



[시설 안내판]



[시설 내부]



[시설 내부]



[직원들과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



[기념촬영]

2. Porvoo Town Hall [포르보 시청]

□ 방문개요

- 일 시 : 2022. 12. 12.(월) 10:00
- 면 담 자 : Ms. Elina Duréault (경제개발관리자),
Mr. Niklas Läckström (교육전문가)
- 주 소 : Läntinen Aleksanterinkatu 1, Porvoo, Finland

□ 주요 방문 내용

○ 포르보 복지 관련 설명 (Ms. Elina Duréault)

- 핀란드 전체 인구는 520만명이고, 포르보의 인구는 5만 1,300명으로 핀란드에서 중간 규모의 도시임.
- 포르보 안에는 4,200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일자리는 2만 1,000개 있음. 실업률은 10.3%로 핀란드 전체 실업률과 비슷함.
- 포르보의 1인당 GDP는 65,694유로로 핀란드 국민 1인당 GDP인 48,000유로보다 훨씬 높음.
- 핀란드뿐만 아니라 북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복지가 좋은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음. 그러나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고 그 재원은 결국 세금에서 나옴.
-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음. 핀란드 사람들은 20~30%의 소득세를 기업체들은 20% 정도를 법인세로 내고 있음.
- 핀란드 복지제도에 대해 말하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 굉장히 저렴하고, 대학교 및 직업학교를 포함한 학교가 무료임. 간혹 등록금을 받는 곳도 있으나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함.
- 핀란드의 은퇴연령은 64세이며,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케어가 저렴함.

그리고 병원의 질이 굉장히 좋고, 무료이거나 저렴하며 특히, 포르보와 같은 작은 도시들은 대기자가 많지 않아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핀란드의 문제점으로는 인구의 고령화가 있음.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이 많은데 이에 따라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이민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임.
- 여성 및 사회 평등에 관한 얘기를 하면, 핀란드는 조금 일찍부터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
- 핀란드뿐만 아니라 대다수 북유럽 국가에는 전업주부가 없고 결혼 및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임신 중 그리고 출산 이후 정기적인 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영유아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음.
- 엄마에게는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출산휴가가 주어지며, 1년간은 원래 받던 월 소득의 70%를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그 이후에는 월 400유로를 지급함.
- 또한, 최근 10~20년간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 핀란드에서 엄마들이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아이 한명당 월 200유로 정도 선이며,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무료인 경우도 있음.
- 실업 관련 지원책에 대해 얘기하면 무직인 사람에게는 핀란드 실업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고용창출 역할 미흡에 따라 실업청 업무를 2025년까지 시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 고용주에 관한 정책도 굉장히 다양한데, 핀란드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절차나 규정들이 까다로운 편임.

- 한 예로, 어떤 회사가 1년 동안 무직자인 사람을 고용하면 국가에서 6개월간 그 사람의 월급 80%를 대신 지급한다든지 실업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고용할수록 회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
- 개인 사업자 육성 정책도 추진 중으로 핀란드의 90% 사업체는 영세 소규모기업들인데 이러한 영세 소규모 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800유로를 월급처럼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음.
- 또한, 포르보 시에서 모든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대출 방법,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상담 등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영세사업자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기업의 수익 창출에 따라 시에서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생 관계이기 때문임.

○ 포르보 교육 관련 설명 (Mr. Niklas Läckström)

- 한국에서 교장은 거의 정년이 되었을 때, 즉 경력의 마지막에 할 수 있고, 높은 데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교장의 임용이나 임명은 학교 내부에서 진행이 됨.
- 핀란드에서 교장은 학교당 예산 내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게 무엇인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음.
- 학교가 투자를 더 받아오는 방법으로는 핀란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받아오는 것이 있음.
-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으며,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여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 주요 질의답변

Q : 기업을 시작할 때 6개월간 월 800유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개인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인지?

⇒ 이전에 고용됐던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에 따라 달라짐. 처음에는 급여의 약 70%를 주고 기간이 오래 될수록 낮아짐.

Q : 시의 기업체가 4,200개라고 했는데 이게 영세소규모기업들이 포함된 것인지 주식회사는 형식을 갖춘 회사들만인지?

⇒ 이 지역에 네스테라는 굉장히 큰 정유 업체가 있으며, 이 업체에서 3,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 이외에 2~3개 정도의 큰 기업체가 약 1,000명 규모로 고용을 하고 있음. 나머지 대부분은 영세업체들로 그 개수를 포함해 4,200개임.

Q : 포르보의 1인당 GDP가 상당히 높는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

⇒ 우선,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음. 가장 큰 규모의 정유 업체가 1960년대에 포르보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유 업체는 큰 규모의 오일탱크가 필요함. 포르보의 해안선 등 지형이 오일탱크 설치에 좋은 환경이었음.

그 외의 중요한 요소는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큰 기업체들이 투자를 할 때 고용자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포르보는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고 유치원이나 환경적인 것들이 안정되어 있음.

그리고, 최근에 포르보가 투자자로부터 각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헬싱키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공간이 많고 저렴하기 때문으로 그런 부분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음.

Q : 유럽의 환경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환경기준은 기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임. 특히, 핀란드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굉장히 높고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요건을 맞춰야하는 기업체들에게는 부담인 것이 사실임. 다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Q :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누구이고 대상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 컨설팅은 포르보에 있는 컨설팅업체에서 제공하며 13명 정도가 근무하는 업체임. 컨설턴트는 전직 은행원, 마케팅 담당 등으로 각자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큰 기업체는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영세업체를 위한 서비스라고 보면됨.

Q : 병원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고 했는데 암이나 희귀질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 정확한 퍼센트를 말하기 어렵지만 암 같은 경우에는 90~95%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함. 다만, 새로운 치료법으로 매우 비싸거나 아직 정책적으로 얼마큼 지원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임.

Q : 51,300명의 인구 중 청년층 인구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 20~30대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Q : 유치원이 국공립,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는지와 베이비시터와 같은 돌봄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 사립 유치원도 있긴 하지만 얼마 되지 않고, 결국 국가 차원에서 사립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비슷한 수준임.
핀란드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데 부부 중 1명이 무조건 4시

에서 4시 30분에는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함. 유치원이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 따라서 베이비 시터가 필요 없음.

□ 시사점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는 2012년부터 세계 각국 국민들의 행복을 지수로 표현한 세계 행복 보고서를 펴내고 있으며, 핀란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 참고 : 대한민국 행복지수 순위

연 도	2022	2021	2020	2019	2018
순 위	59	62	61	54	57
대상국	146	149	153	156	156

- 핀란드의 높은 행복지수의 바탕에는 탄탄한 복지제도가 있으며, 포르보 시청 방문에서도 복지제도에 대한 자부심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흡한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업무의 이관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음.
- 포르보시 관계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좋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포르보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무료 컨설팅 정책은 좋은 사례로써 강원도에서도 정부지원과 더불어 지역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음.

□ 방문 사진



[포르보 소개]



[포르보 소개]



[포르보 소개]



[기념품 전달]



[기념촬영]



[기념촬영]

3. Frankfurt City Council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 방문개요

○ 일 시 : 2022. 12. 13.(화) 19:00

○ 면 담 자 : Ms. Julia Eberz (부의장),
Ms. Anna Nguyen (시의원),
Mr. Jumas Medoff (시의원),
Ms. Claudia Korenke (시의원),
Mr. Mathias Pfeiffer (시의원),
Ms. Christina Ringer (시의원),
Ms. Petra Bouilaut (국제부장)

○ 주 소 : Logenstraße 8, Frankfurt, Germany

□ 주요 방문 내용

○ 환영사 (Ms. Julia Eberz)

- 만나서 반갑고 환영함.

본인은시의원 Julia Eberz이고, 의장단에 속해 있으며 부의장으로서 Hilime Arslaner 의장을 대리해 이 자리에 섰음.

- 한국은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프랑크푸르트의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함. 기아, 삼성 등 많은 한국 기업이 라인마인지역*에 독일 지부 또는 유럽 지부를 두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라인마인 : 프랑크푸르트, 비스바덴, 다름슈타트 등(헤센州) + 마인츠 (라인란트팔츠州) + 아샤펜부르크(바이에른州) 등 프랑크푸르트 주변 라인강, 마인강 지역 주요 도시

- 프랑크푸르트와 한국 사이에는 매주 20회 직항이 오가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에는 한국 국적자들이 2,500명 살고 있고, 라인마인 전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7,000명에 달함.

- 한국 문화는 독일에서도 갈수록 사랑받고 있고, 이런 사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통해 드러나며, 한국의 언어나 음식을 배우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아도 알 수 있음. 많은 한국 식당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한국 음식을 좋아함.
- 올해 5월에는 축구경기장에서 첫 k-pop 축제가 열렸는데, 86개국에서 7만여 명이 모였으며, 2023년에도 이 축제를 계속할 것임.
- 내년에는 더 많은 한국 행사들이 열릴 것이며, 한독교류 140년을 기해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펼쳐질 것임. 예를 들어 한국의 날 부대 행사로 시내 한복판 하웁트바흐(Hauptwache)에서 조금 전에 언급한 k-pop과 그 외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즐거움을 선사할 것임.
-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영화제는 상당히 인기가 좋음. 한국 영화제와 또 개천절 리셉션이 내년에도 계속 열릴 것이며,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도 계획 중임.
- 보다시피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한국의 중심이며 관계는 매우 가깝고 또 우호적임.
- 오늘 프랑크푸르트 시의 이름으로 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함.

○ 주요 질의답변

Q : 의원이 총 몇 명인지와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 의원은 총 93명이며, 위원회는 12개가 있음.

Q :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배정 기준은?

⇒ 작은 정당은 위원회마다 한명씩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큰 규모의 정당은 결국 의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배당함.

Q : 소수당 의원들은 여러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몇 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 정당 전체 의원수 비율을 반영하여 위원회에 배당이 됨.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의원이 있어야 하며 소수당 같은 경우는 3명의 의원이 12개의 위원회를 나눠서 참여하게 되는데 한명이 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 숫자 이야기에 한가지 덧붙이면,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안에는 다양한 그룹이 형성되어 있음. 혼한 경우는 아니나 현재 집행부를 보더라도 4개의 정당이 연정을 하고 있으며, 시의회에는 12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음. 프랑크푸르트 시의회에 특히 많은 정당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5% 최소기준, 즉,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 5%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임.

Q : 전체 의원의 수가 93명인데 어떻게 선출하는지?

⇒ 93명을 전부 투표로 선출함. 투표용지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정당 및 성명 리스트가 나와 있으며, 유권자 한명이 93명을 모두 선택할 수 있음.

Q : 강원도의회는 주요 기능은 조례제정과 집행부에 대한 감사 기능인데 프랑크푸르트 시의회의 주요 기능은 어떤 것인지?

⇒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차원에서 입법 역할은 하지 않고, 주에 있는 입법위원회,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짐. 감사 기능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도시공사 등 시소속 기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시 사무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게 됨.

Q : 경찰의 관리·운영은 어디서 하는지?

⇒ 독일 경찰은 여러 단계로 구분됨. 연방 경찰이 있고, 헤센주 경찰이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시 경찰과 시 교통경찰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

Q : 시장을 시의회에서 선출하는지와 현재 시장이 해임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 프랑크푸르트 시장은 시민들이 직선제를 통해 선출함. 시장에 대한 해임은 우선 시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2022.7월 시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었음. 이후 6주 동안 시장이 스스로 퇴진할 시간이 주어지나 전 시장은 퇴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1월 6일 주민투표가 있었음. 시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30%가 선택해야 하는데 프랑크푸르트 유권자는 50만명으로 30%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해임에 여러 정당이 참여하여 시장을 해임시켰음.

※ 참고 : 2022.11.16. 치러진 Peter Feldmann 프랑크푸르트 시장 해임 여부 투표에서 투표율 40%에 찬성표 201,825표, 반대 10,371표를 얻어 해임 결정되었음.

Q : 시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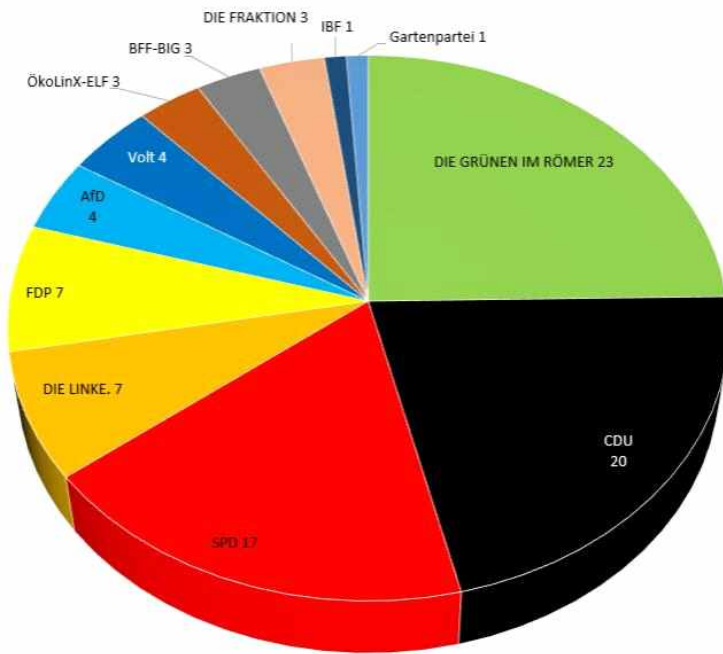
⇒ 아이들에 대한 복지 및 돌봄 정책 등 인구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은 연방차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이민자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Q : 의원에 대한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 교섭단체에 따라 전문 연구원 개념의 직원이 있고, 의원에 대한 보좌관은 없음.

□ 시사점

- 프랑크푸르트 시의회에는 12개 정당 소속으로 93명의 의원이 있고, 그 중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규모(3명 이상)를 갖춘 정당이 10개가 있음.
- 프랑크푸르트 시의회는 우리나라의 기초의회에 해당하여 광역의회인 강원도의회와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사례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위원회 배정 부분임.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의석 배분 현황 ('21.9.1.~)

○ 프랑크푸르트 시의회에서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섭단체는 규모에 따라 각 위원회 참여 인원을 배정받는데, 특별한 점은 한 명의 의원이 복수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임.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복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단, 「국회법」 제39조에는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 상임위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 시의회의 상임위제도는 소규모 교섭단체에도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소속 의원은 위원회 참여 자체가 제한된다는 한계점도 있음. 다양한 의견반영 기회 확대 차원에서 참고할 만함.

□ 방문 사진



[부의장 환영사]



[본회의장 기념촬영]



[본회의장 기념촬영]



[간담회]



[간담회]



[기념품 전달]

4. Offenbach City Council (오펜바흐 시의회)

□ 방문개요

- 일 시 : 2022. 12. 14.(수) 14:00
- 면 담 자 : Mr. Stephan Färber (시의장)
- 주 소 : Berliner Str. 100, Offenbach am Main, Germany

□ 주요 방문 내용

○ 오펜바흐 소개 (Mr. Stephan Färber)

- 오펜바흐는 작고 가난하지만 긍지를 가진 프랑크푸르트의 이웃 도시임. 프랑크푸르트에는 약 70만명, 오펜바흐에는 약 14만명의 주민이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에는 많은 기업과 산업들이 있음. 프랑크푸르트가 1유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펜바흐는 24 유로센트를 가지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가 돈으로 문제를 처리한다면 여기 오펜바흐에서는 많은 부분을 봉사와 가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활용해야 함.
- 독일 정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맨 위에는 전체 독일 연방 차원이고, 그 다음에는 16개 연방주가 있으며, 오펜바흐는 헤센주에 속해 있음.
- 각 주는 간접적으로 통치에 참여하는데 상원 같은 연방 차원의 위원회가 있음. 단계상 강원도는 헤센주와 비교할 수 있고, 크기로 치면 강원도는 헤센주의 약 80% 크기가 됨.
- 헤센주에는 630만명의 주민이 있으며, 10만명 이상 되는 도시가 5곳 있으며 이것을 대도시라고 표현함. 5개의 도시 중 프랑크푸르트가 가장 큰 도시이고 오펜바흐가 가장 작은 도시임.

- 오펜바흐 시의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구조에서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의회임.
- 독일 헌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그 중 시에서 직접 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 그리고 주 차원에서 정해놓지 않은 부분임.
- 이제 오펜바흐 이야기를 하면, 오펜바흐 시의회에는 71명의 의원이 있고 교섭단체는 7개가 있음. 가장 강한 교섭단체는 사민당(SPD)이며, 전통적으로 가장 강한 교섭단체에서 의장을 선출함.
- 사민당은 연방 차원에서 2021년부터 녹색당, 자민당(FDP)과 연정을 하고 있으며, 오펜바흐도 마찬가지로 연정을 하고 있음.
- 가장 강한 야당은 기민당(CDU)이고, 그다음은 좌파당, 그다음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극우당임. 또한 자유 유권자라는 당이 있고 6명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임.
- 각 교섭단체는 그 크기에 따라 1~2명의 유급 직원이 있음.
- 의장은 마치 판사나 스포츠 심판처럼 초당파적이어야함. 의장은 소속 직원 6명을 데리고 있는데 시의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함.
- 시 행정부와 시의회는 엄격하게 구분되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개입할 수 없음. 정치적 권력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연방이나 주에서 정한 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함.
-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시의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음. 다만, 행정부 내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다수당이 반대하는 결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결정이 됨. 그래서 야당은 언제나 불만이 많음.
- 시의원들은 모두 명예직이며, 보통 직업이 따로 있음. 오펜바흐의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로 매달 300유로 정도를 받음. 회의 참석에

따른 별도 수당은 없으나, 특별한 기능을 위한 자리에 대해서는 추가 보수가 있음.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00유로를 받고 의장은 750유로를 받음.

- 오펜바흐 시의회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음.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받아 토의하고 작업하며 그 후 본회의에 올려 결정함.
- 오펜바흐가 어떻게 재정을 꾸리는지 얘기하면, 4억 7천만 유로가 시 예산임. 대부분은 연방주에서 오는 자금이며 주가 주는 과제를 하는 데 쓰임. 그리고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바로 시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소득세는 연방으로 가는데 소득세 수입 중 15%를 시에서 돌려받음. 그 외에 토지세, 애건세, 도박세 등이 있음.
- 오펜바흐가 하고 있는 주요 임무를 얘기하면, 재해 방지와 소방 업무, 음료수 공급, 학교 및 유치원 건설 그리고 가스 및 전기 공급, 폐수 처리 등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오펜바흐 시의 권한임.
- 또한, 오펜바흐는 프랑크푸르트 인접 도시로 오페라하우스, 동물원, 식물원 등 많은 부분을 프랑크푸르트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오펜바흐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음.

○ 주요 질의답변

Q : 의장 본인도 별도의 직업이 있는지?

⇒ 현재 은퇴한 상태이며 기존에는 연방 차원의 부처에서 일했었음.

Q :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의원에 대한 경쟁률이 있는지?

⇒ 작년 71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550명이 지원했음.

Q : 한국 및 강원도는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게 고민인데 오펜바흐의 고령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 오펜바흐는 독일에서 가장 젊은이가 많은 도시임. 독일 전역의

평균 연령이 44.7세이고 오펜바흐의 평균 연령은 40.1세임.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는 순수 독일계가 아닌 이주민 출신이 많으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함. 각자의 출신국 국민이 아닌 오펜바흐 시민으로 느끼도록 정체성을 만드는게 중요함.

Q : 오펜바흐에 젊은이들이 많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 오펜바흐에 일자리가 많아 젊은이들이 모인다기보다 일반 독일인보다 출산율이 높은 이주민들이 오펜바흐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 오펜바흐가 사회통합 표본도시로 외국인들이 편하게 지낼수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40여년 전에 오펜바흐에 굉장히 많은 산업이 발달했었고 그 당시 터키, 그리스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해왔고, 이에 따라 사회통합 문제를 다른 도시들에 비해 일찍 깨우친 결과라고 생각됨.

Q : 초중고 교육은 연방정부가 담당하는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지?

⇒ 학교를 짓고 관리인을 채용하는 것 등은 시에서 담당하고, 주에서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함.

□ 시사점

- 독일은 낮은 출생률로 인해 1972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으나, 2012년부터 대규모로 이민자와 난민을 수용해 총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음.
- 프랑크푸르트뿐만 아니라 오펜바흐에서도 인구정책 중 하나로써 이민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이민자·난민 수용을 통한 인구증가는 독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독일의 이민·난민 정책이 이민자·난민에 의한 범죄, 난민 및 외국인 혐오 범죄 등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함.

-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이후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과거 분단의 경험, 보수적인 이민정책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사회적 발전과정을 거쳤던 독일이 포용적 이민정책의 추진을 통해 유럽 내 경제·인구 대국이 된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독일이 미리 경험한 상황 및 정책들을 잘 살펴보는 한편, 이후의 행보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방문 사진



[시의회 입구 기념촬영]



[시의회 입구 기념촬영]



[오픈바흐 소개]



[간담회]



[간담회]



[기념품 전달]

IV 총평

- 2022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을 방문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우수 정책 사례를 체험하고 비교·연구함으로써 의정활동 추진 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확인하는 등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음.
- 핀란드에서는 국민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마다 국가가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복지 시스템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지켜준다는 신뢰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행복지수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 러시아와 스웨덴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역사적·사회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음. 다른 점이 있다면 복지 수준으로 핀란드의 복지 시스템이 우리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독일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인구정책, 특히 이민정책을 주목할만 함.
- 강원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 유출로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
-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이주민 증가에 대비한 사회통합 정책을 미리 준비하여 사회갈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